비전 2035
가장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신뢰받는
에너지 화학기업 S-OIL

朝鮮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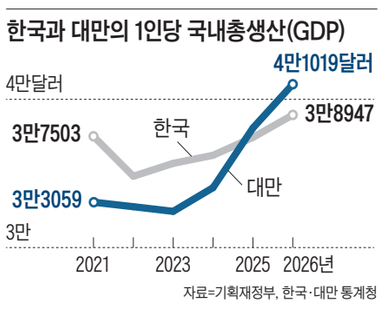
교육부 공식 발표, 수도권 통합 취업률 1위
졸업생 2천명이상, 6년연속 17-22년, 2024년
경복대학교
서울지하철 4호선 진접(경복대)역

안내 (02)724-5114 구독·배달 080-900-0077 1920년 3월 5일 창간 105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음력 7월 24일 丁亥

4만달러 뚫는 대만, 3만달러 갇힌 한국

올해 1인당 GDP 22년만에 역전
내년 대만, 3만 돌파 5년만에 4만
저성장 한국, 10년째 벽 못 넘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올해로 10년째 '3만달러대 박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대만은 내년에 1인당 GDP가 4만달러 벽을 뚫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2016년 3만달러 선을 뚫은 한국보다 늦은 2021년에야 1인당 GDP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4만달러' 클럽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장기간 4만달러 벽에 막혀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14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두 나라의 성장률 전망치와 인구 추계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와 대만의 1인당 GDP는 각각 3만7430달러, 3만8066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대만에 뒤처진 것은 2003년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대만 통계청은 내년 대만의 1인당 GDP가 4만1019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4만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1인당 GDP가 3만8947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앞서던 때 두 나라의 1인당 GDP 격차는 2003년 이후 꾸준히 벌어지기 시작해 2018년에는 1만달러 가까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대만은 수출을 중심으로 고속 성장하면서 격차를 좁혔고, 결국 한국을 다시 추월했다. 올해 대만은 4.45% 성장할 전망이지만, 한국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0.9%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대만이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4만달러 시대를 열게 되는 가장 주요한 배경으로 국가 신성장 핵심 산업인 'AI(인공지능) 반도체' 부문을 선점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그리고 우수한 인재 육성과 글로벌 인재 유입 등을 꼽는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하는 기업을 키워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략적으로 AI 반도체 등의 위탁생산에 집중하고, 관련 인재를 집중 육성한 것이 대만 경제의 성공 비결"이라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기사 A3면

EPA 연합뉴스

'커크 암살' 계기로 세계 정치 갈등 격화… 英 11만명 반이민 시위

13일 영국 런던 도심에서 열린 불법 이민자 수용 반대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들이 시위대를 저지하고 있다. 영국 강경 우파 운동가 토미 로빈슨이 주도한 이날 집회에는 약 11만명이 모였다. 프랑스·독일·덴마크의 우파 정치인들이 연단에 올랐고,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화상으로 발언했다. 미국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을 계기로 시위 규모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사 A14면

경기 '고3 운전면허비' 30만원
광주는 모든 중고생에 97만원

〈최대〉

경기교육청은 최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30만원씩 주는 사업을 도입했다.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경기도 지역 전체 고3 12만4000명이 대상이다. 운전면허증이나 각종 자격증을 따는 데 쓸 수 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372억원. 교육청 사전 설문 조사에서 학생 82%가 "운전면허 따는 데 쓰겠다"고 밝힌 만큼, 예산 대부분이 운전면허 학원에 지급될 예정이다.

학생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늘어 선심성 지원 펑펑

경기교육청은 "학생 역량 개발 사업"이라고 했지만, 지역 교육계에선 "내년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거세다. 경기교사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인 만 18세에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육 본질과 관계없는 혈세 낭비"라고 밝혔다. 올해 고3(2007년생)들은 각자 생일이 지나면 만 18세가 되어 내년 지방선거 때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다.

광주교육청은 내년부터 전체 중고교생에게 1인당 67만~97만원의 바우처를 주기로 했다. 서점이나 문구점, 독서실 등에서 쓸 수 있다. 작년과 올해는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2인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에게 줬다. 그런데 내년엔 다자녀 등 기준도 다 없애고 전체 중고생에게 주기로 했다. 사업 예산은 작년 203억원, 올해 414억원, 내년 600억원으로 치솟고 있다. 광주교육청 측은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의 현금 지원 사업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예산 규모는 총 5991억원으로 2021년(2800억원)보다 2배로 늘었다. 5년간 전국 교육청이 지급한 현금을 다 합하면 2조2208억원에 달한다. 김민기·오주비 기자 A2면에 계속

정부, 美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 요청

3500억달러 투자 펀드 관련
현금 조달 대응 카드로 제시

한국 정부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5조원) 투자 펀드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달러를 단기에 조달할 경우 원화 가치 폭락 등 외환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14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 재정 당국은 현재 통화 스와프를 포함한 투자 펀드 조성 방안을 협의 중이다. 통화 스와프는 한국이 원화를 주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교환 약속'으로, 외환시장 충격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난 7월 관세 협상 타결 당시 투자 펀드의 상당 부분이 '보증' 형태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상당 부분을 보증이 아닌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통화 스와프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통상 당국에 따르면 3500억달러는 지난달 말 한국 외환 보유액 4163억달러의 84%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달러 현금 조달이 불가능한 규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미국 요구대로라면) 3500억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00억~300억달러를 넘기 어렵다"고 했다. 시장에서 원화를 대거 투입해 달러를 조달할 경우,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치솟아 외환시장 붕괴 가능성이 있다. 김지섭 기자 기사 A4면

李정부 100일을 말한다
정무수석 인터뷰 A28

與 "내란 전담부 뭐가 문제인가" 대법원 압박

정책위 의장, 중앙지법에 설치 요구
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법원을 향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라고 압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별도 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대법원이) 법원 내부 지침에 따라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서 유감"이라며 "(사법부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 결국 입법적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대법원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률로 내란 재판부 설치를 강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내란 특별 재판부'에 이어 여당이 추진하기 시작한 방안이다. 현행 법원 체계와 별도로 구성하는 내란 특별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장이 법원 내에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은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한 것만 발의돼 있다. 권순완·김은경·김나영 기자 A5면에 계속

八面鋒

내란 전담 재판부 요구하는 與, 지금 尹 재판이 더뎌서라고. 연말 선고 예정인데 바꾸면 더 늦는 것 아닌가.

○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에 전북도, 개발론·환경론으로 갈라져. 정치권의 '표(票)퓰리즘'이 빚은 예고된 갈등.

○

알바니아 "공공 입찰 비리 막겠다"며 뇌물 안 통하는 AI 장관 임명. '혁신적 실험' '정치 쇼' 사이 어디쯤.

서울시, 환경부, LG에너지솔루션 쿠루, 블루샤크가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소상공인분들께
450만원 상당의 전기스쿠터를 무상 지원하여 드립니다
지원금액 4,415,000원 블루샤크 R1K 전기 스쿠터
지원자격 서울시에서 사업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에 한함
소상공인이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업종별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체 운영자
1) 5인 미만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미만 사업자
2)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10억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50억 이하
부동산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30억 이하 / 제조업: 120억 이하
지원조건 1. 스쿠터는 본인소유로 2년간 타인 양도 불가
2. 배터리 교환 서비스 월 66,000원 (1년 약정 후 요금제 선택 가능)
월 1,200km~1,500km 주행 가능
** 소상공인 사업자당 최대 3대까지 신청 가능

blueshark
500분 한정마감
소상공인 확인서 접수 순서대로 마감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가능)
"전기 스쿠터의 새로운 기준, 교환형 배터리"
서울 전역에 설치된 LG에너지솔루션 쿠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주유소처럼 간편하게, 충전된 배터리를 즉시 교환가능
- 빠르고 안전한 배터리 교환
- 사용량에 맞춘 합리적인 월 요금제
- 1년 이후 자유로운 요금제 변경 가능
요금제 안내 (월 정액)
베이직 33,000원 | (출퇴근) 66,000원 | (배달) 99,000원 | 프로 132,000원
신청방법
연락처와 성명을 온라인 또는 전화 접수하시면 접수순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대표번호: 080-280-5555
온라인: http://소상공인무상지원사업.com/
http://소상공인무상지원사업.com/